<h1>나 혼자만 레벨업-9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x1840a7145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6화</p>  
<p>헌터옥션에 도착했다.</p>  
<p>본사 건물은 낮은 대신 넓게 지어져 있어 회사 빌딩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연상시켰다.</p>  
<p>경매 참가자가 백이든, 천이든 전부 수용해 주겠노라 외치듯 드넓은 주차장.</p>  
<p>그 주차장 중간에 떡 하니 세워진 으리으리한 건물.</p>  
<p>헌터옥션이 아티팩트 거래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.</p>  
<p>택시에서 내려선 진우가 건물 쪽으로 향하자, 채 몇 걸음도 떼기 전에 안에서 격식 있게 차려입은 남자 하나가 뛰어나왔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 되십니까?"</p>  
<p>"네."</p>  
<p>남자는 진우의 얼굴을 확인하고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그러나 곧 자신의 본분을 떠올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.</p>  
<p>"연락받았던 헌터옥션 감정팀 김정기입니다. 이리로 오시죠."</p>  
<p>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김정기는 진우를 감정실로 안내하며 오만 생각을 다 했다.</p>  
<p>'방금 기자들 앞에서 자취를 감춘 S급 신인이 내 뒤에 있다니.'</p>  
<p>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.</p>  
<p>일단 아티팩트 효과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고, 하필 오늘 S급이 된 헌터라고 밝힌 점에서 더 그랬다.</p>  
<p>'하마터면 S급 헌터한테 욕을 날릴 뻔했잖아?'</p>  
<p>헌터협회에서 성진우 헌터의 번호가 맞다고 확인해 줬을 땐 어찌나 간담이 서늘하던지.</p>  
<p>매뉴얼대로 무례하지 않게 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.</p>  
<p>[...급으로 새로이 등록된 성진우 헌터는 각성 후 각성을 거쳐 E급에서 S급으로 무려 다섯 단계를 건너뛰었으며, 마법계열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...]</p>  
<p>아직도 건물 내부 곳곳에 비치된 TV에선 그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. 본인도 신경 쓰이는지 후드를 다시 눌러썼다.</p>  
<p>자기 이야기도 아닌데, 김정기는 연신 진우를 언급하는 뉴스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우쭐해졌다.</p>  
<p>'셀카라도 같이 찍자고 해 볼까?'</p>  
<p>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여기가 직장만 아니었어도 셀카나 사인 같은 걸 요구해 봤을 거다.</p>  
<p>하지만 중요한 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그런 무례를 범할 수는 없었다.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었다.</p>  
<p>'입구에서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짧았었나?'</p>  
<p>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사이 금방 감정실이 나왔다.</p>  
<p>김정기는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.</p>  
<p>"이쪽입니다."</p>  
<p>넓은 방 안에는 점심도 포기하고 달려온 감정팀 팀장과 수석 감정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팀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.</p>  
<p>'진짜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네?'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마른침을 힘겹게 꼴깍 삼켰다.</p>  
<p>'그럼 마법 증폭구도 정말로...?'</p>  
<p>아니야, 아직은 모른다.</p>  
<p>사람이 진짜라고 물건까지 진짜란 법은 없지.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자신을 달래듯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다.</p>  
<p>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팩트 제작자가 최고의 재료들로 혼신을 기울여 만든 마법 증폭구의 증폭률이 5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.</p>  
<p>그마저도 재료 모으기가 쉽지 않고, 제작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많아 몇 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말까다.</p>  
<p>사겠다는 마법계열 헌터들이 전 세계에 까마득히 줄지어 서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 팔 수가 없는 것이다.</p>  
<p>뭐, 세계까지 갈 것도 없다.</p>  
<p>국내에서만 해도 최종병기라 불리는 마법계열 헌터, 최종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증폭구 구매를 벼르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등급만 S급일 뿐이지 아직 이름도 잘 안 알려진 헌터가 증폭률이 100퍼센트나 되는 물건을 들고 왔다고?</p>  
<p>'말도 안 되는 소리...'</p>  
<p>상대가 최상급 헌터만 아니었어도 엉덩이를 걷어차서 내쫓았을 만큼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S급 헌터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.</p>  
<p>만약 이번 일이 해프닝으로 끝난 다고 해도 앞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거래처가 될 사람이니까.</p>  
<p>'밑져야 본전이다.'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약간의 기대감과 그 몇 배 이상의 의구심이 섞인 낯빛으로 진우에게 말했다.</p>  
<p>"그... 아티팩트를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?"</p>  
<p>김정기와 감정팀 팀장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진우를 응시했다.</p>  
<p>"그러죠."</p>  
<p>진우는 주머니에서 꺼내는 척하며 창고에 있는 '탐욕의 구슬'을 불러냈다.</p>  
<p>"이게 그..."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.</p>  
<p>아름다운 핏빛의 구슬.</p>  
<p>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힘이 담긴 물건이었다.</p>  
<p>감정팀 두 사람은 작게 감탄했다.</p>  
<p>"흐음-"</p>  
<p>하지만 수석 감정사는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이건 마정석이나 마석의 힘으로 만든 아티팩트가 아니군요?"</p>  
<p>"아닙니다."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역시.'</p>  
<p>감정사를 시작한 지 7년.</p>  
<p>꽤 오랜 시간 아티팩트를 관찰해 왔지만 붉은색을 띠는 수정구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평범한 수정구는 맑고 푸른빛을 띠며, 상급으로 갈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진다.</p>  
<p>그런데 붉은색이라?</p>  
<p>수석 감정사는 거듭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, 수정구를 넘겨받았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'뭐, 뭐지?'</p>  
<p>돌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.</p>  
<p>수정구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힘 때문이었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<p>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법구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수석 감정사 자신도 B급의 마법계열 각성자.</p>  
<p>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 바로 직감할 수 있었다.</p>  
<p>전신에 식은땀이 흘렀다.</p>  
<p>'맙소사!'</p>  
<p>마법구에서 퍼져 나오는 힘에 소름이 돋아 황급히 고개를 쳐드니, 진우가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다.</p>  
<p>'이걸 가져온 사람이 낮은 등급의 헌터였으면...'</p>  
<p>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.</p>  
<p>그간 초고가의 아티팩트를 수도 없이 접해 왔지만, 감정을 맡긴 사람을 때려눕히고 아티팩트를 강탈하고 싶어진 적은 이번이 유일했다.</p>  
<p>그런데 상대는 S급.</p>  
<p>'...?'</p>  
<p>진우가 말끄러미 쳐다보았다.</p>  
<p>그의 시선에 감정사는 간신히 자신의 욕망을 추스릴 수 있었다.</p>  
<p>'S급을 상대로 강탈을?'</p>  
<p>감히 시도는커녕 상상도 해 보기 힘들 정도의 격차가 있는 헌터였다.</p>  
<p>감정사가 마법구를 보고 그랬던 것처럼, 진우도 감정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.</p>  
<p>'왜 저러지?'</p>  
<p>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?</p>  
<p>어쨌든 감정사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쳐 내며 팀장에게 물었다.</p>  
<p>"팀장님, 카메라 켜 주세요."</p>  
<p>"아! 예, 예."</p>  
<p>카메라를 켜 달라는 건 지금 감정사가 들고 있는 물건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뜻.</p>  
<p>팀장의 심박이 빨라졌다.</p>  
<p>진우의 연락을 처음 받았던 김정기의 표정도 다르지 않았다.</p>  
<p>"촬영 시작합니다."</p>  
<p>팀장은 카메라 렌즈를 감정사 쪽으로 돌렸다.</p>  
<p>감정사는 원판형의 마력 측정기 앞에 섰다.</p>  
<p>처음은 마법구를 내려놓고.</p>  
<p>삑-</p>  
<p>수치가 나왔다.</p>  
<p>그리고 두 번째는 마법구를 손에 쥐고 다시 한 번 측정.</p>  
<p>감정사에게서 흘러나오는 마력 측정값이 순식간에 두 배로 증가했다.</p>  
<p>삑-</p>  
<p>측정 결과를 확인한 김정기의 안색이 파래졌다.</p>  
<p>"이럴 수가..."</p>  
<p>팀장도 달려와 결과를 확인했다.</p>  
<p>'100퍼센트? 정말로 100퍼센트의 증폭률을 가진 마법구라고?'</p>  
<p>심장이 벌렁거렸다.</p>  
<p>헌터옥션에서 아티팩트 거래를 돕고 받는 수수료가 평균 5퍼센트 가량.</p>  
<p>천억만 받아도 50억을 챙길 수 있는 장사다.</p>  
<p>그런데 이 붉은 마법구의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는 자신의 오랜 경력으로도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다.</p>  
<p>'대박이다! 대박이야!'</p>  
<p>보는 눈들만 없었다면 당장 만세를 부르며 옆의 부하 직원을 끌어안고 싶은 기분이었다.</p>  
<p>거래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는 얼마쯤 나올까?</p>  
<p>흥분에 숨이 콱 막혀 왔다.</p>  
<p>김정기의 반응도 상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. 상기된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.</p>  
<p>'좋았어!'</p>  
<p>이번 일만 제대로 맡으면 승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.</p>  
<p>"시...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."</p>  
<p>감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자 붙어 있던 감정팀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졌다.</p>  
<p>진우도 눈치껏 물러섰다.</p>  
<p>카메라는 아직 잘 돌아가고 있었다.</p>  
<p>구매자들에게 어필하려면 단순한 수치보다는 영상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.</p>  
<p>감정사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했다.</p>  
<p>"시작합니다."</p>  
<p>감정사의 오른손 위에 트럭 바퀴만 한 규모의 눈보라가 휘몰아쳤다.</p>  
<p>감정사는 말을 이었다.</p>  
<p>"마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법구에 접촉해 보겠습니다."</p>  
<p>그의 왼손이 '탐욕의 구슬'에 닿는 순간.</p>  
<p>휘이이이잉-!</p>  
<p>손 위에서 춤추던 눈보라가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깜짝 놀란 감정사가 즉시 마법을 거두지 않았다면 방 전체가 얼어붙을 뻔했다.</p>  
<p>"카메라 꺼 주세요."</p>  
<p>"예, 예."</p>  
<p>팀장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달려가 카메라를 껐다.</p>  
<p>이로써 아티팩트 감정 과정이 모두 끝이 났다.</p>  
<p>'후-'</p>  
<p>감정사의 손끝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마력을 느끼며 조마조마했었던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그런데 진우뿐 아니라 방에 있는 모두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일시적으로 방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.</p>  
<p>진우가 물었다.</p>  
<p>"얼마나 나가겠습니까?"</p>  
<p>이걸 팔면 원하는 아티팩트를 구할 수 있을까?</p>  
<p>아니, 그것도 그거지만 100퍼센트 증폭 마법구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순수한 호기심이 일었다.</p>  
<p>감정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'탐욕의 구슬'을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"이걸... 이런 물건에 제가 어떻게 가격을..."</p>  
<p>그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옮겨 갔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그는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이 남자는 대체 어디서 이런 아티팩트를 구해 왔단 말인가?</p>  
<p>감정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, 그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물었다.</p>  
<p>"어디서 구하신 겁니까?"</p>  
<p>진우는 감정사가 아니라 김정기 쪽을 바라보며 되물었다.</p>  
<p>"그것도 원활한 판매를 위한 질문인가요?"</p>  
<p>김정기는 머쓱한지 시선을 피하며 목 뒤쪽을 긁적였다.</p>  
<p>감정사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니요, 아닙니다. 단지 저는... 너무 놀라워서. 하지만 이런 마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들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궁금해할 겁니다."</p>  
<p>과연 다른 두 사람도 궁금해 죽겠다는 눈치였다.</p>  
<p>'뭐, 상관없나?'</p>  
<p>물어본다면 말 못해 줄 이유도 없긴 했다.</p>  
<p>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습득한 것도 아니고, 알려 준다고 남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.</p>  
<p>진우의 입술이 떨어졌다.</p>  
<p>진우를 제외한 세 사람은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숨소리도 멈추고서 대답에 집중했다.</p>  
<p>진우는 웃으며 말했다.</p>  
<p>"던전에서 주웠습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백윤호는 사장실로 들어갔다.</p>  
<p>"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."</p>  
<p>비서에게 따로 지시한 것도 모자라 문을 걸어 잠근 그는 컴퓨터를 켰다.</p>  
<p>그리고 S급 헌터이자 길드 마스터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손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'있을 수 있는 일인가?'</p>  
<p>백윤호의 머릿속에 진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.</p>  
<p>성장이 가능한 헌터라니?</p>  
<p>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그의 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</p>  
<p>그의 손가락이 바삐 움직였다.</p>  
<p>전 세계의 최상급 헌터들만 이용할 수 있는 헌터 사이트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.</p>  
<p>그러나 허사였다.</p>  
<p>'없어...'</p>  
<p>스스로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헌터는 없었다.</p>  
<p>각성이나 재각성이라는, 순전히 운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을 뿐.</p>  
<p>헌터를 달리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 부를까?</p>  
<p>수많은 창이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,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오갔다.</p>  
<p>그러길 3시간째.</p>  
<p>장시간 검색에 지친 백윤호가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.</p>  
<p>'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가?'</p>  
<p>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놀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떠올려버린 건지도 모른다.</p>  
<p>"하하."</p>  
<p>한창 바쁜 시간에 뭐하는 거람?</p>  
<p>이럴 시간에 성진우 헌터에게 문자나 한 번 더 보내야 하는 건데.</p>  
<p>약삭빠른 최 대표가 벌써 성진우 헌터를 찾아 게약서를 들이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?</p>  
<p>백윤호는 실소를 흘리며 창을 하나씩 꺼 나갔다.</p>  
<p>그리고 마지막 창이 남았을 때.</p>  
<p>'가만...'</p>  
<p>반쯤은 장난으로 검색 사이트에 '헌터 성장 능력'이라고 쳐넣었다.</p>  
<p>물론 성과는 없었다.</p>  
<p>백윤호도 딱히 뭔가를 기대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.</p>  
<p>그냥 검색이 필요할 때마다 하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할 뿐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 오늘 점심도 안 먹었구나.'</p>  
<p>뒤늦게 느껴지는 허기에 배를 문지르며 입맛을 다시던 백윤호가 검색창을 끄려는 순간, 그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검색 결과 다섯 번째 페이지쯤에 링크된 글 하나.</p>  
<p>링크 주소가 헌터들만 가입 가능한 전용 카페의 주소가 아니었다면 그냥 넘겨 버렸을 글.</p>  
<p>백윤호는 마우스를 움직였다.</p>  
<p>[제목: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]</p>  
<p>[내용: 갑자기 게임처럼 능력치가 보이고, 능력치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?]</p>  
<p>익명으로 써진 글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뭐라고 할까.</p>  
<p>글을 읽어 내려가며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뛰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?'</p>  
<p>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.</p>  
<p>백윤호는 수화기를 들었다.</p>  
<p>-네, 사장님.</p>  
<p>곧 제2관리과의 안상민 과장이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안 과장님이 하나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."</p>  
<p>이 익명의 글이 올라온 날에 성진우 헌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다.</p>  
<p>-예. 알아보겠습니다.</p>  
<p>담백한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.</p>  
<p>안 과장은 능력 있는 직원이다.</p>  
<p>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봐 줄 사람이었다.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더 빨랐다.</p>  
<p>'벌써?'</p>  
<p>백윤호는 금방 울리는 전화를 들었다.</p>  
<p>-남아 있는 기록이 있어서 얼마 안 걸렸습니다.</p>  
<p>"그래요?"</p>  
<p>백윤호는 반색했다.</p>  
<p>그러고 보니 안 과장의 지시로 제2관리과 전체가 성진우 헌터에 대해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다 모은 적이 있다고 했었지.</p>  
<p>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다.</p>  
<p>-예, 그날 성진우 헌터님은... 아, 이때가 그때인가 보네. 왜 그 몇 달전에 이중 던전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?</p>  
<p>"있었죠."</p>  
<p>-성진우 헌터님이 그 이중 던전 생존자셨거든요. 아마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의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</p>  
<p>"아... 그렇습니까."</p>  
<p>백윤호는 실망스런 눈빛을 했다.</p>  
<p>의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.</p>  
<p>'능력치를 올리다니... 그런 일이 가능할 리 없지.'</p>  
<p>정말 웃기지도 않은 해프닝이었다.</p>  
<p>어쩐지 피곤해졌다.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눈이라도 좀 붙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.</p>  
<p>-어? 잠깐만요. 내내 기절해 있기는 했는데...</p>  
<p>수화기 너머에서 신기하다는 듯 안상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.</p>  
<p>-딱 그날 눈을 뜨셨네요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